

일본의 결핵사업

편집부

이 글은 대한결핵협회 박연수 사무총장이 1996년 11월 25일부터 1주간 일본과 홍콩 결핵 폐 및 심장질환협회를 방문하여 그 나라의 결핵관리사업을 돌아본 내용을 정리한 글로서 3회에 걸쳐 게재됩니다.

〈읽는 순서〉

1. 일본결핵예방회 및 결핵연구소
2. 일본 : 복십자병원, 제1건강 상담소, 시부야 진료소 등
3. 홍콩 결핵 폐 및 심장질환협회(The Hong Kong Tuberculosis, chest and heart diseases association), 그란탐(Grantham) 및 로튼지(Ruttonjee) 병원 등

일본결핵예방회는 결핵 및 이에 관련 하는 질병에 대하여 1) 홍보교육, 2) 조사연구, 3) 예방 및 치료, 4) 교육연수, 5) 예방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6) 국제 기술협력 사업 등을 수행한다.

1. 홍보교육

결핵의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치료

와 환자관리 등의 결핵대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국민의 결핵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회에서는 창립 이래 결핵 지식의 보급을 위해 힘써왔으며 전국의 지부와 밀접한 유대를 갖고 각종 사업을 실시해 왔다. 출판물과 포스터 및 영화와 슬라이드제작 배포, 강습회 개최, 매스컴을 통한 홍보활동 및 대회, 예방주간, 표창 등 각종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과 기회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결핵예방전국대회(매년 5월)

전국의 결핵예방관계자들이 1년에 한번 한 자리에 모여 공동관심사를 토의, 의견을 교환한다.

첫째날은 전국지부장회의, 전국결핵 예방부인단체연락협의회 총회 및 당해 중요문제를 토의하는 분과회가 개최되며 둘째날은 결핵예방 공로자에 대한 표창 등의 대회식, 결의 선언문 채택, 특별강연 등으로 2,000 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의 행사이다. 동 대회는 일본결핵예방

회와 개최지 현의 공동으로 개최되며 채택된 결의문은 정부에 건의한다.

결핵예방주간(매년 9월24일~30일)

매년 당해 연도의 결핵대책추진방향을 중심으로 건강진단 미수진자를 위한 대책추진, 유증상자수진 촉진, 부인조직을 중심으로 한 결핵예방활동의 촉진을 목표로 후생성, 지방자치단체시, 일본의 사회, 전국결핵예방부인단체연락협의회, 건강체력만들기 사업재단과 연합하여 매년 9월 하순의 1주간을 예방주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

결핵치료자, 완치자 및 그의 가족의 수기와 표어모집, 전국 초·중학교 교육용 교재제작·배포, 포스터, 벽보 등의 작성 배부 등은 본부가 담당하며 지부에서는 추진대회 강연회, 무료검진, 환자위문 등 다방면에 걸친 행사가 행해진다.

<출판>

결핵예방과 관련된 교육과 계몽을 위하여 정기간행물을 포함하여 수십종에 달하는 책자를 발행·배포하고 있다.

1) 결핵을 중심으로한 질병예방 지식을 넓히기 위해 부인회를 중심으로한 일반홍보용, 환자지도용, 팸플릿 등

2) 결핵대책을 철저히 알기위해 결핵행정에 관한 실무 지식과 그의 해설 및 결핵통계, 결핵예방관계법령집 등

3) 결핵예방 관계기술자의 기술향상도모를 위한 의사, 방사선사, 보건부, 임상검사기사 및 결핵 및 홍부질환의 전문서

■ 본부내

회복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월2회 사회복귀 및
취업상담에 응하고 있다.
■

이와같은 출판물은 각종 강습회, 연수회의 교재로 활용하며 매년 행해지는 의사의 지역별 강습회에서 활용된다. 의학세미나 등은 엑스선 사진을 보면서 의사의 토론을 중심으로 편집된 것으로 독창적인 기획물이며 교육용으로 널리 활용된다.

최근에는 다변하는 결핵관리기술을 소개하기 위해 결핵관리시리즈를 발행하여 강습회에서 활용하고 있다. 그외에 흡연관련 책자도 발행되고 있다. 기관지인 '복십자', 학교교육용 팸플릿은 전국 지부를 통하여 읍·면·동보건소 또는 학교 등에 무상배포되어 국민건강교육에 공헌하고 있다. 광범위하게는 홍보자료를 수시로 발행하여 보도기관의 뉴스로 제공하여 출판물을 통한 홍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회복자 상담과 환자의 원호

요양중에 있는 환자를 격려하고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한 사업으로 건강한 일반 사람들에 대하여는 결핵예방의 중

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된다.

1) 결핵요양자, 회복자 및 그 가족의 수기모집-일본방송협회, 매일신문사의 후원으로 매년 결핵예방주간을 전후로 전국에서 수기를 모집하여 우수작품을 선정 수상하며 라디오, 신문 등에 발표하며 또 본회 관지 '복십자'에 게재하는 등 문집으로도 발행하고 있다.

2) 요양문예선집(년간)의 발행과 요양문예상의 설정-매년 본회지에 기고된 요양문예 동인지 중에서 시가, 산문 등 문예작품에 대한 전문가의 우수작품 선별작업을 받은 후 상기 수기와 함께 한 권으로 모아 매년 발행하고 있다. 이중에 특히 우수한 작품은 요양문예상을 수여한다.

3) 회복자 상담 : 본부 내에 회복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월 2회씩 결핵회복자들의 사회복귀 및 취업상담에 응하고 있다. 병의 회복정도와 심폐기능 등 의학적인 면의 직업적성도판정, 사회사업 봉사원에 의한 사회적·가정적 환경 심리 면 등 사회적응도의 판정, 공공직업안정소 상담자에 의한 적정한 직업판정 실시 등의 상담결과를 종합하여 사회복귀와 취업 상담을 한다.

타 기관에 이와같은 시설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복귀 자료작성에도 기여한다.

부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결핵예방운동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므로 일본 결핵예방회는 부인조직

과의 제휴를 돈독히하며 기회있을 때마다 관계 단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결핵예방부인회는 '57년 처음으로 나가사키현에 결성되어 시즈노카현, 아끼다현 등으로 전국 각지에 이 운동이 보급되어 '75년에는 전국결핵예방부인단체 연락협의회란 명칭으로 전국 조직이 결성되고 '77년에는 후생성으로부터 사단법인의 인가를 받고 그 후 가맹단체도 증가되어 지금은 전국 현에서 주요단체로 활약한다.

사업국은 본부에 설치하고 본회와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하며 후원의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관지 '건강의 윤'을 발행하여 상호간의 계발과 연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간부는 매년 고덴바시에서 실시하는 중앙연수 교육을 받으며 그외에도 블록단위로 행하는 지역연수회 개최 등 결핵예방 홍보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결핵개선을 위한 국민의 결핵에 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부인회의의 활동은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2 조사 연구

연구활동에 있어서는 본회 창립 이래 결핵연구소를 중심으로 결핵 및 흉부질환의 기초 및 임상역학까지 종합적인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결핵연구소는 일본 유일의 결핵 및 흉부질환에 관한 종합연구소이며 국립연구원에 버금가는 역할을 한다. 그 연구결과는 국가의 결핵행정에 직접 반영되어

결핵예방체제의 확립과 대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예를들면 결핵발병학설 확립, 엑스선 독영법, 간접촬영법완성, 건조BCG 백신 개발과 경피접종법의 연구, 오가와배 지원성, 화학요법 효과에 관한 종합연구, 폐절제술 등 폐외과요법의 개척, 결핵관리체제 등 모두 일본의 결핵대책을 위한 결핵예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환자조기발견의 방법으로 집단검진, 발병방지를 위한 BCG 예방접종, 치료지침에 의한 의료기준, 감염원 대책으로는 환자관리방식 등 일련의 결핵대책을 병행하는 수술방식의 개선, 진보는 본회의 연구실적 없이는 이룩하기 어려운 것이며, 서베이런스체제연구 등은 일본의 결핵퇴치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결핵이외에 폐암, 만성기관지염, 대기오염 흉부질환 전반에 대한 연구를 한다.

3. 예방과 치료

병원과 진료소를 설치하여 연구조사된 방법으로 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임하고 있다. 또한 이 임상성적을 연구에 반영하여 연구와 임상 일체화 도모 및 종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엑스선검진차를 각 현 지부에 설치하고 결핵집단검진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전국 검진수의 반 이상이 예방회의에 의해 실시된다.

- 병원운영—복십자병원, 신야마데병원
- 진료소 운영—제1건강상담소,
—시부야진료소,
—찌부노미야기념진료소
에 대해선 다음에 게재한다.

4. 관계자에 대한 교육연수

독영센터 운영

근래에 들어 흉부엑스선필름 특히 필름독영능력이 있는 사람이 줄어들어 질병발견에 있어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검진의 정밀도가 요망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부에 흉부엑스선 사진독영센터를 운영하며 숙련된 의사에 의해 집중독영되고 있다. 이 방법은 점차 각 지부로 보급되어 본회의 진단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핵예방기술자에 대한 재교육과 일본결핵예방회 창립 이래 연구활동과 병행하여 실시해 온 사업이나 결핵연구소의 연구성과는 교육에 도움을 주고 있고 후생행정대책 수립에도 기여하며 결핵대책 추진성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연수대상자는 현재 결핵예방사업의 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의사, 진료방사선사, 보건부, 임상검사기사 및 그외의 사업에 관계되는 직원이다. 연수 코스는 의학과, 방사선과, 보건간호학과로 분류하며 장·단기로 나누어 임상검사기술연수, 행정연수(사무직원포함) 연 10개 과정의 연수를 실시한다. 또 의학부

의 학생을 대상으로 결핵 및 흉부질환의 지식습득을 위하여 하기대학 강좌를 실시한다.

장기연수는 결핵연구원에서 실시하며 연수생을 위해 숙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전국을 단위별로 나누어 의사, 방사선기술자, 보건부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모든 지역별 강습회를 개최하여 최근 지식습득의 편의를 꾀하고 있다.

이 강습회는 개인적인 이유로 결핵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참가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행정이외의 지도의사 등도 참가하며 감별진단 또는 새로운 화학요법 실시 등 적정의료보급을 위해 공헌하고 있다.

결핵연구소가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계획적인 교육연수를 하며 지방에서 하고 있는 지도의에 대한 강습회 등은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강사를 파견한다. 결핵전공 기술자의 감소경향에 따라 앞으로 연수사업은 더욱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일본결핵예방회는 전국에 지부를 두고 적극적인 결핵예방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지부사업에 대하여는 본부에 직접 활동을 조성하는 외에 자금관계에 있어 각 방면에서 보조금을 받아 시설 및 기기 등의 준비를 하고 있다.

5. 기금 조성 사업

본부에선 매년 일본자전거진흥회 일본선박진흥회의 보조금 또는 우편엽서 발행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건물의 증축, 의료 검진 기기 등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일본 자전차진흥회의 보조금에 의해 제작하고 있는 결핵검진차 및 검사전용차는 '게이린호'로 명명하여 전국 지부에 배치 결핵환자 발견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일본결핵예방회의 지부가 결핵집단검진수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이 '게이린호'의 기동력에 의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결핵연구소의 부설 흉부질환센터(현 복십자의원) 건물은 일본선박진흥회의 보조금에 의한 것이며 일본의 흉부질환 전문시설로 활약하고 있다. 그외 지부의 반수이상의 결핵예방센터도 일본선박진흥회의 보조금 그 나머지는 결핵예방센터와 우편엽서 발행을 위한 수익금 등으로 건립되었다.

지역 결핵관리센터로서 그 활동이 주목되고 있는 후쿠오카의 관리센터는 우편엽서 기부금에 의해 세워진 것이다. 그외에도 엑스선 텔레비전, 자동현상기 등 의료기기가 본부, 지부방침에 따라 정비되고 있으며 집단검진 사업 및 진료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복십자 쉼 운동

복십자 쉼 운동은 결핵과 간암 그외의 흉부관련 질환을 조기발견 치료하여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 질환에 대한 개발과 예방의식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사업자금의 조성을 위해 행해지고 있다.

쉼 운동은 1904년 덴마크에서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세계 120개국에서 공통의 국제적인 결핵예방운동으로서 크리스마스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행사가 되고 있

다. 본회에선 '52년부터 이 운동에 동참하였다.

일본의 크리스마스가 외국만큼 일반인에게 친숙하지 못하여 결핵예방주간을 중심으로 8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썰모금운동이 전개되어 주로 부인조직, 관공서, 시군면, 보건소 또는 지역 위생조직 학교 등을 통해 일반 여러 계층의 협조를 받고 있다. 또 개인이나 회사 등에 썰을 우송하여 협조를 구하고 우편모금도 전개하고 있다.

썰 디자인은 매년 주제(예컨데 음악, 선박, 꽃, 동물, 과일, 어린이를 위한 환타지)을 정하고 일반인에게 널리 공모하여 입선작을 수상하고 대형 썰 50시트, 소형 6시트를 제작하며 대장성 인쇄국에서 그라비아인쇄로 제작된다. 색상과 디자인이 우수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수집가에게도 기쁨을 주고 있다.

또한 썰과 복잡사봉투의 셋트도 모금매체로 활용되고 있다. 썰모금으로 인한 기금은 일반적인 경비와 분리하여 결핵검진차, 검진기기의 정비, 시설정비, 결핵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결핵 조사연구 및 예방사업 조성과 보호대책, 또는 개발도상국의 결핵대책 지원금으로 쓰여지고 있다.

6. 국제협력

국제연수코스

본회 결핵연구소는 '63년부터 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여러나라의 의사, 세균검사기사를 초청하여 정기코스

의 국제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결핵대책코스, 세균검사코스는 4개월의 장기코스 와 결핵대책코스에 참가한 자에 대한 고급코스인 1개월의 특별코스가 있다.

강의는 본회의 의사 및 WHO에서 파견한 강사가 주로 담당하고 영어로 강의하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국제연수로 WHO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남아 중심이었던 것이 점차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서태평양까지 확대 매년 참가국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결핵 및 폐질환연맹(IUATLD) 협력사업

본회에서는 WHO 결핵전문위원 또는 단기전문가로 의사를 파견하여 WHO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WHO의 집행이사로도 활약하고 있다. 연구에 있어서는 WHO와 공동으로 추진해왔다.

IUATLD는 세계의 결핵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의 연합조직인데 본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73년에는 동경에서 제22회 국제결핵회의를 개최하여 세계 각국의 국위를 선양하였다.

IUATLD 운영면에서도 주요 역할을 담당하며 IUATLD본부 및 동부지역의 분담금을 부담하여 일본만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결핵퇴치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매년 썰 모금의 일부를 IUATLD 본부에 납부하여 동남아시아의 결핵대책 추진금으로 송부하고 있으며 그외에 교육·영화제작에도 참여하고 있다. 卍